

# 농·축산업 경영 안정 30건 5183억원 지원

2023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

청년농업인 정착금 10만원 상향  
후계농업인 용자 상환 15→25년  
축사 지붕 도포 지원 50→70% 등

전남도가 2023년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5183억원 규모 30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후계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3년간 10만원씩 늘어난다. 1년 차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110만원으로, 2·3년 차에도 각각 90만원에서 100만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용자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늘고 상환금리는 2%에서 1.5%로 완화된다. 용자지원 한도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1000리터 미만 농업용 유통저장탱크를 1대당 33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수분 유입에 따른 농기계 고장 발생을 예방한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해결과 영농 기계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과수 재배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농산물운반기, 승용제조기 등 시설·장비 및 농기계를 새로 지원한다. 또 시설과수 희망농가 대상 비가림하우스 신축(2500만원/10a), 무인방제시설(최대 2500만원) 등을 지원해 과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5억원도 신규 편성에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한다. 수도

권 향우 3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희망농업인과 유기농 명인을 멘토-멘토로 1대1 연결해 친환경 농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와 기술전수비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는 4개월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수행하면서 영농일지도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도하지 않은 농약 비산을 막고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시책도 추진한다. 친환경 비를 집적화함으로써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판로를 확대한다. ha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등을 타 지역에서 온라인 구매하거나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택배비를 포대당 1500원에서 500원 인상해 지원하고, 전남 쌀 대량구매처는 1당 최대 1만원을 지원해 전남 쌀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타 지역 판매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지원을 중점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고, 올해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부담 이자율 1%를 줄이기 위해 이자 지원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돼지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자동 모든 자급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리사 1인당 모든 4마리 이상 인공수정기 가능해져 노동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고유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농정시책을 다수 발굴해 추진한다"며 "올해 농업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토산어종 지난해 161만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하천 생태계 복원·어업인 소득 증대 목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개체 수 증가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시·군 56개 강·하천에 어린 담수어종 161만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는 감소해가는 토산어종 어류종자를 방류해 강, 하천 생태계 복원과 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군별로 어업인이 희망하는 품종과 방류시

기, 방류수면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지역 서식환경에 적합한 8개 어종을 선정해 지난해 5월 4일 건강한 어린 실뱀장어 7만마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메기, 동남참게, 쏘가리, 동자게, 자라, 붕어, 잉어를 지역 어업인 및 관계기관과 함께 풀어줬다.

내수면 어업은 남획, 환경오염, 외래어종 유입으로 지역 토산어종 자원량이 감소해 잡는어업 종

사자가 줄어들어 따라 주요생산은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10종의 지역 토산 어류물고기 2924만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자원량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남도는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11~12월중 도내 내수면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 215명을 대상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효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본 사업이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95.8%)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공동주택 36개 단지 품질 점검

1만8657세대 균열·안전·마감상태 등 1432건 지적 사항 개선

전남도가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36개 단지 1만8657세대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진행, 1432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안전·조경·토목시설 마감 미흡, 각 세대 마감상태 불량 등이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건축 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전기, 조경 등 9개 분야 6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 감소, 품질 향상, 각종 분쟁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좋은 품질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품질점검 대상물 관련법에서 규정된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품질점검 시기도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추가로 기초 및 골조 단계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기초 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골조 단계에서는 공동주택 입주기간 고질적 다툼인 중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내부 바닥 평활도, 바닥 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에 대한 품질 및 시공 상태를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기초 및 골조 단계에서도 빠짐없이 품질점검을 신청하도록 시·군 및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상호 소통을 통해 입주 후 하자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며 "도민 입장에서 철저한 품질점검을 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각종 하자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2023년 4월 재위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마을사업 한눈에

도, 활용가이드 2023 발간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전남 마을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발간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는 마을 대상 여러 가지 행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이 다양하고 담당 부서도 각각 달라 마을 주민은 물론 행정과 활동가, 관련 단체도 어떤 지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

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경관, 체험·소득 증대, 사회적경제, 문화·복지, 역량 강화, 주민자치 등 분야에 44개 단위사업이 담겼다.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별로 담당부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마을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 다양한 마을사업과의 사업 지원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에서 요트 타기' 인기만점

여수·신안 체험형 콘텐츠, 5개월간 관광객 2500명 유치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5개월간 여수와 신안에서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2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요트 체험 프로그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요트 관광상품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여수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해양관광산업 직업체험 ▲케이팝(K-POP) 밴드 선상공연 등을 운영하고, 신안에서는 ▲선장복을 입고 요트를 조종해보는 선장 체험 ▲SOS취급 기념품 증정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선상 성악공연 등 다채로

운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했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8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트 탑승 관광객은 "다른 지역 요트는 단순히 해양 경관을 둘러보기만 하는 것에 비해 전남은 요트 탑승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트체험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에는 누리소통망 인증 포토존을 구성하고, 야간 운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더 즐겁게 전남의 아름다운 해양과 섬을 체험할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